

#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독립영화 만나다

6월 1~15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상영관 '지리멸렬' '심판' '기념촬영' '생강' 등 1990년대 단편 22편 상영 '안녕, 90's' 전 여성·노동 등 시대상 담아낸 극영화 등 무료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독립영화를 만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배급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월 설립한 독립·예술영화 공공 온라인 플랫폼 '인디그라운드'는 독립·예술영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객들의 플레이그라운드(놀이터)다.

또 예술영화 창작자, 배급 등 산업관계자들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응원하는 테스트그라운드(시험장)이자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인디그라운드는 설립 이후 독립영화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69편의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으며,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할만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리뷰크'와 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까치밭' 온라인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에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한국 독립영화사에 주요한 궤적을 남긴 1990년대 단편 영화 22편을 상영하는 특별 기획전 '안녕, 90's'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완성도와 이야기를 지닌 작품들을 다시 주목하고, 90년대 한국 사회의 사람

들, 공간, 그리고 카메라를 든 그 시절 감독들의 생생한 시선을 통해 새로운 시간의 경험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여성, 실업, 노동, 사회, 성장 등 당시의 시대상을 다양하게 담아낸 극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먼저 당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그려낸 봉준호 감독의 유니버스 단편 '지리멸렬'(1994), 한국 사회와 타락한 인간상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박찬욱 감독의 블랙 코미디 '심판'(1999), 아내가 된 여성의 현실을 담담하고 진지하게 그려낸 정지우 감독의 '생강'(1996), 한 소녀의 시선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바라보는 정윤철 감독의 '기념촬영'(1997), 비현실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시각 효과가 돋보이는 김태용, 민규동 감독의 판타지 무비 '장백한 푸른 점'(1998)을 상영한다.

또 부모님이 집을 비운 후 네 남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권종관 감독의 단편 '1979년 10월 28일 일요일 맑음'(1999), 꿈에서 한 남자의 죽음을 목격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임창재 감독의 '오버미'(1996), 한국 여성민우회와 여성영상집단 바리터가 공동기획제작한 16mm영화로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김소영 감독의 '작은 풀에도 이름있으니'(1990)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민동현 '지우개 따먹기'(1999), 유상근 '체온'(1998), 김동원 '81, 해적 디스코



인디그라운드가 6월 1~15일 1990년대 단편 영화 22편을 상영하는 특별 기획전 '안녕, 90's'를 진행한다. 봉준호 '지리멸렬' <위>과 박찬욱 '심판' 스틸컷.

왕이 되다'(1998), 박찬욱 '느린여름' 피스 오브 올 덴 카인드'(1999) 등도 볼 수 있다. 문의 02-233-0969.

'히치콕의 어떤 하루'(1998), 이석훈 '포 더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남대-서울대 피아노 전공 학생 오늘 전남대서 교류음악회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31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향홀에서 교류음악회를 갖는다.

전남대 음악학과는 그동안 '5월의 Pianists' 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과 수차례에 걸쳐 교류음악회를 열어왔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쇼팽 '피아노 소나타 제3번' 등을 들려준다.

또 브람스 '파가니니 변주곡 제1권'과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제10번', 라벨 '밤의 가스파르' 중 '물의 요정'과 '스카르보', 슈만 '교향적 연습곡' 등도 연주한다.

무대에는 전남대 유유빈·김정찬·박하린 등과 서울대 류준현·김재환·문성우 등이 오른다.

교류음악회를 기획, 추진해 온 신수경 교수는 "이번 음악회는 지역간·학교간 음악적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30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내 인디 가수들 미안마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 부른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민중주의 쟁취를 위해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안마 국민들을 위해 국내 인디 가수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편곡해 헌정 음원을 발표한다. '미안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디연대'(이하 한국인디연대)는 31일 밴드 타카피의 신가람을 비롯해 ABTB 박근홍, 피싱걸스 비엔나핑거 등 13명이 함께 부른 록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발매된다고 최근 밝혔다. 미안마의 평화를 염원하고 군부의 인권침해와 인명 살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음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원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는 미안마에 헌정 음원을 발표하겠다는 아티스트들의 뜻에 공감해 노래를 편곡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고,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국인디연대'에는 약 70명이 동참했으며 인디 가수뿐만 아니라 라 라이브클럽 등 대중음악계 종사자들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 6월에도 신명나는 국악 향연 계속된다

### 매주 화~토 광주국악상설공연

다양하고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 광주국악상설공연이 6월에도 계속된다.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6월 광주국악상설공연에는 작곡그룹 촉, 풍물세상 굿패마루,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등 13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1일에는 2021 작품공모전 선정작인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이 함께하는 '환벽당 이야기'를 예림당이 공연한다. 이 작품은 환벽당을 거쳐 간 문인들의 문학작품과 실제 일화들을 전통예술로 새롭게 창작·각색한 호남풍류 전통예술공연이다.

이어 4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고뇌와 번민을 춤의 아름다움

으로 표현한 '화현과 바라'를 시작으로, 민요 '보랏', 선반 설장구, 단막장극 '놀보와 마당쇠' 등을 선보인다.

11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여름 시원한 상설'이라는 주제로 싱그러운 국악 선율을 들려준다.

장구의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대금과 해금 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가야금이 반주하는 흥겨운 관현악 '얼씨구야' 무대를 시작으로, KTX 안내방송 배경음악을 25현 가야금의 선율로 연주한 '해피니스', 타악과 태평소의 어울림으로 신명나는 '판놀음' 순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문의 062-613-83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 독주회

### 6월 4일 금호아트홀

독주와 실내악 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사진)이 오는 6월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7번 G장조 K 379'를 시작으로 슈만의 '환상소곡집 Op.73', 포레 '자장가 Op.16'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를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윤성근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연주자과정과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으며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했다.

목포대, 세한대, 전남예고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날 무대에는 경희대 음대와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강세라가 협연자로 오른다.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ACC, 예술대학 협력 프로그램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2021 ACC 예술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오는 6월 2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창·제작 공연 지원 사업으로 올해엔 광주·전남·전북 내 지역 공연 예술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작품을 선정한다.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음악 등 장르 제한은 없으며 아시아성을 반영한 공연과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콘텐트를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엔 최대 300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하며 공연장을 비롯해 무대기술, 전문 인력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희망 학교(단체)는 오는 6월 2일까지 전자우편(performance@aci-k.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ACC 누리집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